

#1. 커피숍, 낮

규태, 혼자 앉아 있다. 잠시 후 커피숍으로 정장을 한 40대 남자가 들어와 두리번거린다. (이하 장호민)

규태 (손 흔들며) 장 박사님!
호민 (웃으며 다가가 앉는) 아이고~ 오형사! 이게 얼마만이야?
규태 국과수 왜 퇴직하신 거예요?
호민 알잖아~ 거기 엄청 빡세잖아~ (하더니) 자기는? 아직 복직 못했지?
규태 그렇죠 뭐.
호민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어쩐 일로?
규태 유전자 관련 회사로 옮기셨다고요?

cut to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 하는 두 사람.

호민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를 합성한다?
규태 가능한 애깁니까?
호민 와~ 그게 가능하면 인어공주도 만들 수 있겠네~ 얼굴은 사람이고 다리는 물고기고~
자 보자...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 떡상할 거고 나는 노벨상 타러 스웨덴 가 있겠네!
규태 !!
호민 (황당하게 쳐다보더니) 아직은 영화에서나 가능하다는 거지~
규태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떤 동물의 유전자인지 알 수 있어요?
호민 사람은 100% 판별 가능하고 동물 같은 경우는... 음.. 어떤 개체인지 정도는 알 수 있지. 고양이 과냐 개과냐 뭐 이렇게.. (하더니) 근데 왜~!

규태, 밀봉 된 비닐 팩을 꺼내 호민 앞에 내놓는다.

규태 12시간 이상 지나서 혈액은 이미 응고 됐고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분석 가능할까?
호민 글썄... 오염 정도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고.. 설사 가능해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어. (비닐팩 들어 쳐다보며) 누구 편데?
규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